

파 130% 상승·배추 26% 하락... 들쭉날쭉 농산물 가격

광주 73개 농수축산물 가격 조사... 상승 49개·하락 22개 품목
양파 6.3% ↓ ... 출하량 증가에 1년5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
달걀·축산물 가격 상승에 롯데·이마트 등 농할·할인전 등 진행

광주 농수축산물 가격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기를 맞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했던 일부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달걀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하락세를 맞아 가격 오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니 조사를 벌인 농수축산물 73개 가운데 가격이 1년 전보다 오른 품목은 49개로 나타났다.

22개 품목은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내렸고, 아몬드와 김 2개 품목은 전년과 가격이 같았다.

광주는 농수축산물 가격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며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곡물 7개 품목 가운데 쌀(15.6%)과 콩(10.9%), 팥(10.2%), 잡곡(4.1%) 등 4개는 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

광주 채소 소비자물가는 27개 가운데 17개가 상승했다.

파는 무려 130.3% 올랐고, 열무(76.2%), 마늘(70.7%), 오이(54.5%), 풋고추(30.6%), 시금치(25.3%), 고구마(23.7%), 미나리(19.9%), 토마토(18.1%), 버섯(17.4%), 고사리(15.2%)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양배추 가격은 36.8% 내리고, 배추(-25.8%), 당근(-25.5%), 생강(-17.1%), 부추(-12.3%), 깻잎(-12.1%) 등은 가격이 다소 하락했다.

과일은 귤(-16.4%)과 오렌지(-15.5%), 딸기(-9.3%)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12개가 가격이 올랐다.

감(50.8%)과 사과(48.7%), 배(36.8%), 포도(31.5%), 키위(26.3%), 복숭아(20.3%) 등의 상승폭이 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 확산의 영향을 받은 달걀은 전년보다 42.8% 오르는 등 가격이 오름세가 여전하다.

달걀과 국산 쇠고기(13.6%), 수입 쇠고기(11.6%), 돼지고기(9.8%) 등 축산물 6개 품목가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4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열린 '금요장터'에서 양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직판행사를 벌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운데 4개가 지난해보다 비쌌다. 수산물은 조사 대상 14개 품목 가운데 갈치(14.0%)와 굴(7.9%) 등 10개는 오르고 낙지(-17.8%), 조기(-9.0%), 마른 멸치(-2.5%) 등 3개

는 내렸다. 기타로 분류되는 고춧가루는 전년보다 가격이 25.0% 뛰었고, 생화(14.4%), 참깨(0.5%) 등도 값이 올랐다.

한편 지난해 가격 폭등을 겪었던 양파는 올해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해 들어 1년 5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 물가를 나타냈다.

5월 광주지역 양파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6.3% 하락했다.

양파 물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양파값이 93.3% 올라 이 기간 동안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생종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파 생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연 '금요장터'에서 '양파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본부는 광산구 평동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를 직거래 할인 가격에 선보이며 소비자에 양파 소비를 늘려줄 것을 호소했다.

여름철을 맞아 가격이 다시 크게 뛰고 있는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할인전도 지속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오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할잡시다' 행사를 열어 달걀 20% 할인 판매를 6월에도 연장해 진행한다.

또 육류 소비를 늘리자며 6월6일을 '육육(肉肉)데이'라 이름 붙이고 9일까지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을 최대 40~5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비아농협, 무안 운남농협과 도농상생 협약

광주비아농협은 도농상생을 위해 올해 4번째 농촌농협과 협업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비아농협은 지난 3일 무안 운남농협을 찾아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을 위한 '도농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다.

비아농협은 올해 화순 동북농협, 장성 진원농

협, 광주 임곡농협 등에 영농상생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식에서 무안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양파 25t을 구매했다. 또 운남농협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한 도농상생 발전자금 1000만원

을 전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2부부 선정

'담양 딸기' '장흥 한우' 생산

'담양 딸기'와 '장흥 한우'를 대표하는 농업인 두 쌍 부부가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6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정병운·성은심(담양농협)씨 부부, 김창전·김연자(장흥축산농협)씨 부부가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999년 귀농한 정병운씨 부부는 담양군 담양읍 정성농원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딸기 농사에 전념해왔다.

정씨 부부 딸기는 서울 가락시장 최고 경락가를 기록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2년부터는 딸기 작목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은 담양 정병운·성은심(왼쪽)씨 부부와 김창전·김연자씨 부부.

장흥군 용산면에서 전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부부는 지난 1990년 귀농한 뒤 한우 200여 마리를 키우는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했다.

친환경 농법과 차별화된 기술로 한우를 관리하고 있다. 축산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며 후계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청소년 대상

농업활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산초와 장성호 힐링농장 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어촌공사 장성지사는 지난 2일 장성 성산초교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육성 및 농업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장성호 힐링농장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장성지사는 장성호 홍수면 등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구획정비, 농기구 보관함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산초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촌 공간이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교육·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농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공사는 장성호 힐링농장을 시작으로 대국민 대상 힐링농장을 확산하는 등 농어촌 복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철 지사장은 "장성호 힐링농장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도래와 협동, 자연관찰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성성산초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전남노조, 농촌 일손돕기 현장으로 농협노동조합 전남지부(위원장 안종필) 간부 60여명은 최근 장성과 순천 농가를 찾아 2분기 노조간 부회의를 농촌 일손돕기로 대체하며 인력을 보탤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부도직전 땅, 싸게 팝니다

▶ 광주시내 요지

▶ 오피스텔 허가 득

문의. 010-2928-0202

투자하실 분! 모십니다

▶ 투자금 - 3억 이상

▶ 원금 - 법적 보장 (담보1순위 또는 충분한 담보제공)

▶ 수익금 - 월 1부 이상 보장

(주)오천. H. 010-3605-5000